

# 노동조합은 비정규직의 고용 증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2016. 12. 2

김정우(한국노동연구원)

# 연구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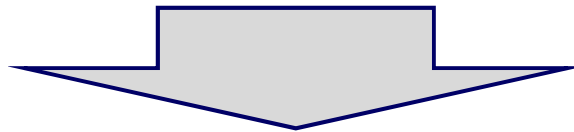
---

- ▶ 비정규직 고용 증감에 대한 책임론 공방
  - 정규직의 과보호와 노조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비정규직이 증가했다는 견해(경영계 및 일부노자)
  - 고용의 주체는 기업이며, 노조는 오히려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하는 주체라는 견해(내셔널센터 등 노동계 주류)
  
- ▶ 노동조합의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의 혼란
  - 모두 WPS자료를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한 표본, 방법론, 모형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 혹은 -의 영향) 보고
  - 패널자료를 활용해 미관측 이질성을 교정한 연구 부재

# 연구의 목적

---

- ▶ 노동조합이 비정규 고용의 증감에 미친 영향 분석
  - 비정규직의 내부의 차이, 즉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의 차이에 주목
  - 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고용대체성과 활용의 수월성 측면에서 차별적
- ▶ 사업체의 미관측 이질성을 고려한 분석
  - 패널 고정효과 모형



노조가 직접고용비정규직과 간접고용비정규직의 고용증감에 미친 영향

사업체의 관측되지 않은 이질성을 통제한 노조효과 추정

# 이론적 배경 I

---

## ▶ 내부자-외부자 이론

-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고용을 늘릴 것이라 예상
- 내부자인 노동조합은 내부자(정규직노조원)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내부자의 규모를 적게 유지하고자 노력하며, 이에 따라 내부자 보다는 외부자(비정규직)의 고용을 선호

## ▶ 교섭력 이론

-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고용을 줄일 것이라 예상
- 노조는 기존의 교섭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노조조직화가 어려운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 채용을 선호하며, 따라서 노조는 비정규직을 감소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침

※ Uzzi & Barsness(1998)는 노조교섭력과 비정규직 고용은 역U자형 비선형 관계임을 발견

# 이론적 배경 II

---

## ▶ 유연기업이론

- 유연기업에 포섭된 노동조합은 2차 주변집단인 직접고용비정규직의 수량적 유연화 추구에 협조할 것이라 예상
- 유연기업은 주요 경영행위에 기여하는 핵심고용인력인 중핵집단(core group)과 구체적 직무를 수행하며 숙련개발이 기대되지 않는 정규직인 1차 주변집단(first peripheral group), 견습훈련, 수습기간 등에서 발생하는 기간제 및 시간제인 2차 주변집단(second peripheral group)으로 구성됨
- 유연기업 외부에 파견노동, 도급, 하청 등으로 구성된 외부화된 노동 시장이 존재함

# 국내 선행 실증연구 I

연구자	데이터	독립변수	결과	종속변수 설명
김유선(2003)	WPS(2002)	노조 유무	×	비정규직 사용 여부
			×	비정규직 사용 비율
노용진·원인성(2003)	WPS(2002)	노조 유무	×	비정규직 비율
이병훈·김동배(2003)	WPS(2002)	노조 유무	×	비정규직 활용 정도
			+	비정규직 활용 및 증가 여부
박우성·박재용(2005)	WPS(2002)	노조조직률	-	비정규직 비율
		노조의 태도	×	
이택면(2005)	WPS(2002)	연대 강한 노조	×	비정규직 비율
		연대 약한 노조	+	
노용진(2007)	WPS(2003)	노조유무	+	비정규직 비율
김동배·이인재(2004)	WPS(2003)	노조 유무	+	비정규직 활용 강도
이시균·김정우(2006)	WPS(2003)	노조 유무	-	비정규직 활용 여부
김동배 외(2004)	WPS(2002 ~ 2003)	노조 유무	+	비정규직 활용 여부
			×	비정규직 증가 여부
			+	비정규직 활용 강도

# 국내 선행 실증연구 II

연구자	데이터	독립변수	결과	종속변수 설명
김윤호(2007)	WPS-KISLINE 결합 (2002 ~ 2003)	노조 유무	+	비정규직 비율
이시균(2008)	경찰부가조사(2003 ~ 2006)	노조 유무	-	비정규직 고용 확률
	WPS(2005)	노조조직률	-	비정규직 비율 및 활용여부
이용수(2009)	WPS(2005)	노조조직률	-	비정규직 비율
이시균·윤진호(2007)	경찰부가조사(2003 ~ 2005)	노조 유무	+	정규직 전환확률
이병훈·홍석범(2010)	WPS(2005 ~ 2007)	노조 유무	+	비정규직 사용여부
			×	비정규직 사용비율 직접고용 사용비율 간접고용 사용비율
		노조조직률	+	비정규직 사용여부
			×	비정규직 사용비율 직접고용 사용비율 간접고용 사용비율

# 국내 선행 실증연구 요약

---

- ▶ 선행연구 내용은 상반됨(<표 1> 참조)
  - 모든 연구가 WPS자료를 활용하였으나 분석결과는 일관되지 않음
  - 대체로 이전의 WPS자료 (2002년, 2003년)를 활용한 결과는 정(+)의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가 많으나 예외도 존재
  - 2005년 이후의 WPS자료를 활용한 결과는 부(-)의 영향이 더 많으나 역시 예외도 존재
- ▶ 사업체의 미관측 이질성을 고려한 횡단면 연구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임
  - WPS2002를 활용하여 도구변수 분석을 활용한 김동배·이인재(2004)의 연구결과 노조는 정(+)의 영향을 미침
  - WPS2005를 활용한 이시균(2008)의 도구분석 결과, 노조조직률은 직접고용비정규직과 외주화비정규직의 고용과 부(-)의 관계를 보임
- ▶ 자료 미구축 등의 요인으로 패널 고정효과 분석은 아직 시행된 바 없음



# 자료 설명

---

- ▶ 사업체패널조사(WPS)1~4년차 자료(2005년~2011년)
  - WPS 1~4년차 자료 중, 모든 시점에서 모형에 있는 모든 변수들을 포함한 균형패널(balanced panel) 자료를 구축(2,624개/4,364개 중)
  - 1기 이상에 걸쳐 동일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관측치들로 불균형패널(unbalanced panel) 자료를 구축 (5,405개/7,147개 중)
- ▶ 분석한 표본의 특성
  - 균형패널 자료는 결측값이 전혀없고, 조사기간 동안 한번도 탈락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패널자료로서의 완결성이 높음
  - 균형패널 자료의 특성에 의한 추정값의 편의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불균형패널 자료로 추가 분석
  - 기술통계량과 추정결과는 두 표본에 큰 차이가 없음

# 추정 방법론

---

## ▶ 패널회귀분석 모형

$$y_{it} = \alpha + T_t + \beta d_{it} + \lambda x_{it} + u_i + e_{it}$$

- $y_{it}$ 는 각 사업체(i)와 시간(t)에 따른 종속변수인 비정규직(직접고용비 정규직, 간접고용비정규직) 활용비율임
- $T_t$ 는 시간(t)의 고정효과이고  $d_{it}$ 는 각 사업체(i)와 시간(t)에 따른 노동조합조직률,  $x_{it}$ 는 각 사업체(i)와 시간(t)에 따른 사업체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임
- $u_i$ 는 관측되지 않은 사업체 특성이고,  $e_{it}$ 는 각 사업체(i)와 시간(t)에 따라 변하는 통상의 순수한 오차항
- 사업체의 시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pooled OLS, 사업체의 미관측 이질성과 설명변수간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가정한 패널확률효과, 사업체의 미관측 이질성을 통제한 패널고정효과 모형으로 추정

# 투입변수 설명

---

## ▶ 종속변수

- 전체고용에서 직접고용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일용) 비율
- 전체고용에서 간접고용비정규직(파견/사내하청/용역) 비율

## ▶ 독립변수

- 전체고용인원에서 조합원을 나누어 구한 사업체별 노조조직률
- 비선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노조조직률의 제곱항 투입

## ▶ 통제변수

- 산업과 규모를 통제
- 비정규직 내부의 대체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직접(및 간접) 고용 비율
- 기능적유연성과의 대체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기능적유연화지수
- 수익성 및 노동비용과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1인당당기순이익과 로그1인당인건비 투입
- 사업체연령과 연도더비

# 표본의 기술통계량

변수	균형패널 표본		불균형패널 표본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직접고용비정규직 비율	0.081	0.168	0.090	0.183
간접고용비정규직 비율	0.118	0.399	0.096	0.350
유노조사업체 비율	0.437	0.496	0.381	0.486
노조조직률	0.263	0.339	0.231	0.330
노조조직률 제공	0.184	0.268	0.162	0.262
경공업(더미)	0.119	0.324	0.124	0.330
화학공업(더미)	0.121	0.326	0.104	0.305
금속·자동차·운송장비업(더미)	0.152	0.360	0.141	0.348
전기, 전자, 정밀공업(더미)	0.110	0.313	0.113	0.316
건설업(더미)	0.047	0.212	0.059	0.236
개인서비스업(더미)	0.124	0.330	0.099	0.298
유통서비스업(더미)	0.098	0.297	0.092	0.290
사업서비스업(더미)	0.121	0.326	0.161	0.368
사회서비스업(더미)	0.082	0.274	0.089	0.285
기타산업(더미)	0.026	0.159	0.018	0.133
30인~99인 규모(더미)	0.288	0.453	0.365	0.481
100~299인 규모(더미)	0.304	0.460	0.290	0.454
300~499인 규모(더미)	0.172	0.378	0.139	0.346
500인 이상 규모(더미)	0.236	0.425	0.207	0.405
사업체연령	24.9	16.2	22.9	15.4
기능적유연화 지수	1.986	1.265	1.867	1.286
1인당 당기순이익(만원)	5,691	72,781	2,764	150,400
1인당 인건비(만원)	4,793	1,917	4,505	1,982
관측치 수	2,624		5,405	

# 실증분석 I – 노조가 직접고용비정규직 활용비율에 미친 영향(균형패널표본)

변수	합동 OLS	확률효과	고정효과
	계수값	계수값	계수값
노조조직률	0.119 ***	0.098 ***	0.083
노조조직률 제공	-0.221 ***	-0.205 ***	-0.175 **
간접고용비정규직 활용비율	0.018 **	0.017 **	0.017 **
기능적유연화 지수	0.004 *	0.002	0.001
1인당 당기순이익	0.000	-0.001	-0.001
로그1인당 인건비	-0.112 ***	-0.068 ***	-0.001
R <sup>2</sup>	0.184	0.178	0.059
관측치	2,624		
하우스만 테스트	-	p-value=0.000	

## 실증분석 Ⅱ – 노조가 간접고용비정규직 활용비율에 미친 영향(균형패널표본)

변수	합동 OLS	확률효과	고정효과
	계수값	계수값	계수값
노조조직률	0.146	0.041	-0.351 *
노조조직률 제공	-0.126	0.020	0.463 **
직접고용비정규직 활용비율	0.117 **	0.118 **	0.135 **
기능적유연화 지수	0.018 ***	0.015 **	0.010
1인당 당기순이익	0.001	0.001	0.000
로그1인당 인건비	0.089 **	0.037	-0.019
R <sup>2</sup>	0.084	0.083	0.013
관측치	2,624		
하우스만 테스트	-	p-value=0.101	

# 실증분석 Ⅲ – 노조가 직접고용비정규직 활용비율에 미친 영향(불균형패널표본)

변수	합동 OLS	확률효과	고정효과
	계수값	계수값	계수값
노조조직률	0.152 ***	0.100 ***	0.047
노조조직률 제공	-0.259 ***	-0.199 ***	-0.112 *
간접고용비정규직 활용비율	0.023 ***	0.018 ***	0.019 ***
기능적유연화 지수	0.000	-0.001	0.000
1인당 당기순이익	0.000	0.000	0.000
로그1인당 인건비	-0.120 ***	-0.086 ***	0.005
R <sup>2</sup>	0.182	0.177	0.079
관측치	5,405		
하우스만 테스트	-	p-value=0.000	

# 실증분석 IV – 노조가 간접고용비정규직 활용비율에 미친 영향(불균형패널표본)

변수	합동 OLS	확률효과	고정효과
	계수값	계수값	계수값
노조조직률	0.150 **	0.121 *	-0.214
노조조직률 제공	-0.139 *	-0.094	0.300 **
직접고용비정규직 활용비율	0.098 ***	0.089 ***	0.111 ***
기능적유연화 지수	0.015 ***	0.012 ***	0.004
1인당 당기순이익	0.000	0.000	0.000
로그1인당 인건비	0.106 ***	0.087 ***	-0.011
R <sup>2</sup>	0.058	0.058	0.007
관측치	5,405		
하우스만 테스트	-	p-value=0.006	



# 추가분석 I – 노조가 직접고용비정규직 활용비율에 미친 영향(불균형패널표본\_유노조)

변수	합동 OLS	확률효과	고정효과
	계수값	계수값	계수값
노조조직률	-0.044	-0.141 ***	-0.233 ***
노조조직률 제공	-0.098 **	-0.002	0.078
직접고용비정규직 활용비율	0.003	0.004	0.006
기능적유연화 지수	0.003	-0.003 *	-0.005 **
1인당 당기순이익	0.000	-0.001	-0.001
로그1인당 인건비	-0.058 ***	0.087 ***	-0.015
R <sup>2</sup>	0.283	0.271	0.086
관측치		2,058	
하우스만 테스트	-	p-value=0.004	

## 추가분석 II - 노조가 간접고용비정규직 활용비율에 미친 영향(불균형패널표본\_유노조)

변수	합동 OLS	확률효과	고정효과
	계수값	계수값	계수값
노조조직률	-0.053	-0.101	-0.395 *
노조조직률 제공	0.043	0.123	0.459 **
직접고용비정규직 활용비율	0.023	0.029	0.083
기능적유연화 지수	0.014 **	0.010 *	0.003
1인당 당기순이익	0.009 ***	0.005	0.002
로그1인당 인건비	0.120 ***	0.064	-0.060
R <sup>2</sup>	0.097	0.095	0.011
관측치	2,058		
하우스만 테스트	-	p-value=0.060	

# 실증분석 결론

---

- ▶ 노조조직률로 측정된 노동조합교섭력은 비정규직 고용에 분명한 영향을 미침
- ▶ **패널고정효과 모형의 추정결과, 노조조직률은 직접고용비정규직 활용비율과 역U자형의 비선형 관계를 나타냄**
  - 이는 Uzzi 등(1998)의 발견과 마찬가지로 노조조직률이 매우 낮은 경우 비정규직활용의 유인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노조조직률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활용을 충분히 억제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간 수준의 조직률을 보일 경우 가장 비정규직 활용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 **간접고용비정규직의 활용비율은 노조조직률과 U자형 관계가 나타남**
  - 노조조직률이 높아지면 경영측은 간접고용비정규직의 활용을 적극 도모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별다른 규제력을 발휘하지 못(또는 안)하는 것으로 판단됨

# 연구의 함의 및 이론과의 정합성

---

## ▶ 비정규직 고용형태에 따라 노조의 영향이 상반되게 나타남

- 정규직 대체가능성이 높고, 부분적으로 노조대표권이 통용되는 직접고용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교섭력이 높아질수록 분명한 규제력을 발휘함(교섭력 이론 지지)
- 대체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노조대표권의 여지가 없는 간접고용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규제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활용과 통계적으로 연관됨(내부자-외부자 이론과 부합)
- 유연기업에 포섭된 노조가 2차 주변집단인 직접고용비정규직의 수량적유연성 추구에 동조할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감

## ▶ 정책적 시사점

- 간접고용비정규직의 남용 억제를 위한 노동조합 차원의 노력이 요구됨
- 비정규직 내부의 이질성에 기초한 차별화된 고용정책 및 규제가 필요